



##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력 방안 모색

외교부·환경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일)부터 12월 8일(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단장 :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 농업협력 사절단 : 자메이카, 온두라스(5.19-25), 디지털정부협력 사절단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10.26-11.3)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 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월)-12월 4일(수) 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절단은 12.5(목)-12.6(금) 간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환경부와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정책 등을 논의하고, 파나마시티에 소재한 세로 파타콘(Cerro Patacón) 매립장과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을 차례로 방문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절단 단장을 맡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을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녹색성장 등을 지원하는 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하여 글로벌 녹색전환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외교부 중남미국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책임자	과 장	민보람 02-2100-7438
		담당자	외무사무관	차지연 02-2100-7437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서현 044-201-6571
		담당자	행정사무관	나옥종 044-201-6563